

## 탈북 학생들의 영어교육 증진 방안 연구: 영어교육 현장의 실제와 개선방향\*

이현주

경기대학교

**Lee, Hyun-joo. (2015). Improvement of English learning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in South Korea: English educational contexts and issues. *Modern English Education*, 16(3), 231-250.**

This study aims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English learning context and the issues regarding English learning in South Korea.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coming to South Korea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new directions and customized-contents based on the learners' need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about their English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and problems. Four English teachers were also interviewed regarding their teaching contents, experiences, and additional supports need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it is necessary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to have living connected language contents, Korean educational culture strengthened by new teaching approaches, English academic skill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improving their English abilities in South Korean educational context. This study not onl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effective English teaching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today, but also sheds light on establishing decent plans for those who are learning English in the unified Korea's English education system in the future.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English education/educational culture/  
탈북학생/영어교육/교육문화]

### I. 서론

한국은 지금 21세기의 글로벌화, IT 산업화를 지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교육과학

---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9922).

기술부, 2011),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통일공감대 확산에 대한 논의도 증가되고 있다(박창희, 2014; 통일부, 2015b).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분단 이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의 수는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그 수가 연간 1,500명에 이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통일부, 2015a).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가족단위 탈북자들이 늘어 나면서 탈북 학생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한만길, 윤중혁, 이향규와 김일혁(2009)에 따르면 탈북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 정도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시점에서 탈북 학생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 문제와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e.g. 김수암, 2010; 나달숙, 2008; 박정란, 강동완, 2011; 박현선, 2002; 이화진 2011;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사회·심리적인 특성, 언어 적응과 이해에 관한 문제, 한국 학교 내에서의 심리적 유대 관계 형성의 어려움, 수업에서의 의사 소통 방법과 이해의 차이 등 한국 학교의 전반적인 적응 문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임민순 1998; 홍덕기, 2001). 탈북 과정에서 학업을 계속 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적 공백과 교육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탈북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체제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어와 같은 개별 과목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영어 능력은 대학 진학, 취업,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 계층적 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국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김은희, 2010; 박성오 2013; 신동일, 임관혁, 2011).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다(e.g. N. Lee & E. Hwang, 2014; Littlewood, 2001). 최서연(2012)은 영어를 중시하는 교육적 정책을 표방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영어 능력 차이는 사회적 계층 문제(social status)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영어 능력과 영어 교육이 갖는 위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내적 구조안에서 영어 능력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 및 계층 문제와 연관된 사회진입의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 사회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 탈북 학생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미비하다. 영어 능력이 상위 학교 진학과 사회 진입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현장을 이해하고 영어 교육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긴밀하게 연관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을 포함한 탈북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내

에서의 영어 교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미비한 현 시점에서 탈북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어 교육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며,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영어 교육의 실질적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탈북 학생들의 영어 교육의 현주소를 알아가는 중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탈북 학생들이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겪는 영어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 2) 탈북 학생 지도 교사들의 영어 교수의 구체적 경험, 내용 및 어려움은 무엇인가?
- 3) 탈북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내용 및 방안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탈북 학생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학교 적응 지원

현재 많은 다문화·탈북 가정의 전반적인 학습 상황과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e.g. 길은배, 문성호, 2003; 김보영, 2009; 안권순, 2010; 엄경남, 2001; 정병호, 정진경, 양계민, 2004; 정진웅, 2004; 최경자, 2008; 한만길, 이향규, 김윤영, 채정민,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 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연구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남한 사회와 학교 적응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탈북 학생들을 한국 사회로 건너온 이주자로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 적응에서의 정서적 안정감 확보, 평등한 교육 기회 정립, 새로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재확립에 대한 교육과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남호엽, 2013; 문희정, 2012; 이부미,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경남(2001)은 탈북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 남북한의 교과 차이로 인한 학업 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탈북 학생들의 사회적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혼란과 부작용의 예방과 통일 시대에 대한 준비로 탈북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진웅(2004)은 탈북 학생들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부적응을 넘어 새로운 남한 사회가 주는 경쟁적 문화와 소비적 문화로부터 많은 압력과 충격을 받는다고 하였다. 별다른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탈북 학생들은 남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로 동화되기가 어렵고, 이러한 소외로 기인된 차별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탈북 학생들이 남한 사회에서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성

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차별 및 소외를 최소화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경자(2008)는 탈북 학생들이 기존의 일반 학급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탈북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보영(2009)은 탈북 학생들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탈북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개별학습 지도, 문화적 체험, 교사 연수 등이 탈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남한의 탈북 학생들을 관할하는 교육 관계자들에게 탈북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그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안권순(2010)은 탈북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을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적응 교육과 특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활성화, 직업 교육 및 진로 교육의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한 사회로의 적응 교육이 탈북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 2.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초기 연구들은 체제의 다름과 정보의 한계성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게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탈북 학생 및 교사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개별 교과에 대한 인식, 탈북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요인을 고려한 남북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차이 등과 같이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노석구, 오필석, 2013; 신원섭, 노석구, 신동훈, 2013).

박창균(2002)은 남북한 초등 수학 교육과정을 북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강령’을 통해 비교하였고, 임재훈, 이경화와 박경미(2003)는 남북한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남한의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의 인지 발달과 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습 내용을 분산하여 배치하였으나 북한의 교과서는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었다. 남한의 교과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제시와 안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설명 위주로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선옥(2007)의 연구는 수학 용어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한의 수학적 용어는 한자와 외래어를 섞어 사용하는 반면 북한의 수학적 용어는 대체적으로 한글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수학적 용어에 생소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노석구와 오필석(2013)의 연구는 남북한의 초·중등 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탈북 학생들이 한국내 교육 현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업 결손에 대한 지도와 보강해야 할 학습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과학 학습과 연관된 남북한 학습자들의 인지적·정의적 특성과 논리적 사고력 증가를 통한 과학 교과 내용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해당 교과서 내용 비교와 함께 탈북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해 탈북 학생들의 과학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신원섭, 노석구, 신동훈, 2013).

따라서 초기의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연구는 문서적 교류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떠한 교수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후의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와 교과서 비교 연구는 국내에 유입된 탈북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학습자들의 변인과 지도 교사들에 인식, 수업 결손에 대한 학습 지도 내용 보강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 3. 탈북 학생들 대상의 개별 교과 교육 관련 연구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가운데 전반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e.g., 길은배, 문성호, 2003; 나달숙, 2008; 정병호, 정진경, 양계민, 2004;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탈북 학생들의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와 동기 부족,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부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주요 교과목인 수학, 과학, 국어와 같은 개별 과목들을 중심으로 탈북 학생들의 인식과 교육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영란, 2013; 박현주, 노석구, 오필석, 김재우, 2014; 조운동, 강은주, 고효경, 2013).

수학 교육 과목에서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00년대 후반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청명(2009)은 석사 학위 논문에서 함수 단원을 학습할 때 탈북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상숙, 신동희와 김애화(2010)는 탈북 학생들의 남한 수학 학습에 대한 인식, 탈북 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식, 탈북 학부모들의 인식을 심층 면담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수학과 과학 학습을 연계하여 초·중등학생들을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하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남한내에서의 수학과 과학 교육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연보라(2011)는 탈북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서 보이는 부적응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상숙(2012)은 탈북 학생들이 수학의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있도록 이 부분의 수학적 영역을 가르치면서 나타나는 오류를 파악하였다. 조운동, 강은주와 고효경(2013)은 2011년도 수학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항 특성들

을 분석하여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들에게 차별적 기능을 하는 문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중·고등 세 학급에서 8개의 차별적 기능하는 문항이 추출되었고, 이것은 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 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원인을 탐색한 결과,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의 언어 능력의 차이, 수학적 문제가 주어진 상황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북 학생들의 수학 교육 관련 연구는 탈북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수학 학습에서의 문제점 및 부적응 개선, 수학 성취도 평가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과학 교과목에서도 교과서 비교와 함께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e.g. 노석구, 오필석, 2013; 박현주, 노석구, 오필석, 김재우, 2014; 신원섭, 노석구, 신동훈, 2013; 임미연, 2014). 박현주, 노석구, 오필석과 김재우(2014)는 남한의 탈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교육 보충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교육과정의 차이와 탈북 시 있을 수 있는 교육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초·중등 수준의 과학 교육 보충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교재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임미연(2014)은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예비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탈북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비 과학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예비 과학 교사들은 학생 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인식 개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학 교육 과정과 내용의 당연성에 대한 재고, 교사들의 관심과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경험 중심의 실천적 예비 과학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국어 교과에서도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전체 학생들과 탈북 학생들의 국어과에 대한 학력수준의 차이와 국어과 평가에 따른 문항유형의 차이가 학생들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탈북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에 비해 성취도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개별 교과와 연관된 문장성분에 관한 내용이나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 등이 바탕이 된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한 지문에서의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13). 평가 환경의 상이성을 보여주는 국어과 문항 유형의 차이에 따른 남북한 학생들의 정답률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유형의 생소함과 평가 유형의 복잡함이 탈북 학생들의 정답률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에서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나 초기 연구로 오사라(2008)는 대안 학교 탈북 청소년들이 반미감정과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 등으로 인해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정세론과 임현우(2009)는 탈북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일반적 저해 요인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의 부재, 기존 한국인들과의 영어 격차 등을 꼽았다. 이들

연구는 탈북 학생들이 경험하는 한국 영어 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이해와 분석보다는 영어 교육에 대한 주변 환경적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연구 가운데 개별 교과목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기부터 다문화 연구와 같이 진행된 탈북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학교 체제 적응을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문서적 교류를 통한 남북한 교과과정 및 교과서, 용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교과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교과 내용 보충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개별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개별 교과에 대한 탈북 학생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한국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교과목에 대한 탈북 학생 중심의 심층적 연구는 현재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영어 교과목을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장 영어 교육의 실질적 모습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에서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의 내용과 학습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실제적 모습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질적 개선과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영어 교육을 경험한 탈북 학생들과 탈북 학생 지도 교사들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1-3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그룹 면담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연구대상자들의 기본 정보이다.

**표 1**  
연구대상자 기본정보

구분	성별	학년	한국 거주 연수	제3국 체류 경험
학생 1	남	5학년	3년	중국
학생 2	여	6학년	2년	중국
학생 3	남	5학년	2년	중국
학생 4	남	6학년	2년	중국
학생 5	여	5학년	3년	중국, 태국
구분	성별	연령대	학급별	교육 경험
교사 1	여	40대	고등학교	10년 이상
교사 2	여	40대	고등학교	7년
교사 3	여	30대	초등학교	8년
교사 4	남	20대	초등학교	1년

먼저 탈북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및 기관들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를 파악하였으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전일제 대안학교와 민간 기관 내의 5명의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1차와 2차로 나눈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탈북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생 3명, 초등학교 6학년생 2명이었으며, 이들은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탈북 학생 참여자들은 한국에 체류한 지 2년-3년 정도 된 학생들로서 대부분 중국이나 제 3국(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5명중 3명의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 영어를 접하는 학생들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 같은 사교육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영어 교사들은 총 4명이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다. 교사 그룹 연구참여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전일제 대안학교와 탈북 민간 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교사 그룹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2명, 초등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0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온 교사로부터 이제 1년 남짓하게 영어를 가르쳐 본 교사까지 다양한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총 4명의 참여자 중 여자 교사 3명, 남자 교사 1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40대 2명, 30대 1명, 20대 1명으로 조사되었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탈북 학생과 지도 교사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탈북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체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탈북 학생 면담은 50분에서 1시간 가량, 교사들에 대한 면담은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탈북 학생들 대상 면담은 학생들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상담실

등에서 그룹 면담 및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 탈북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인을 고려하여 면담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 형식으로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는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물어 보거나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절차 상 두 번의 심층면담으로 구성된 이유는 탈북 학생 및 교사들과의 친밀도를 강화하여 2회에 걸친 점진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여 연구자가 대략적인 질문 내용은 준비하되 연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내용을 끌어내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현장의 소리를 담아 내고자 하였다. 탈북 학생들과의 1차 면담은 학생들의 심리적 상황과 처음 경험해 보는 연구 면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룹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차 면담에서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생활 및 학교 생활, 탈북 학생들의 가정적 배경, 전반적인 한국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등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1차 면담은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탈북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후 2차 면담에서는 연구대상자와 조금 더 친밀해진 관계에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면담의 구체적인 질문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어 교과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 영어 학습에 대한 이해, 구체적으로 한국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영어 교육의 특성, 영어 학습 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바라는 점, 영어 교재의 이해 정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sup>1</sup>.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영어 교사들은 1차, 2차 모두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방과후 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무실이나 근처 카페 등에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1차 면담에서는 교사들의 탈북 학생 교육 경험, 수업의 형태, 탈북 학생들의 영어 이해 수준, 현재 중요시 하는 영어교육적 방향 등을 심도있게 질문하였다. 이 후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탈북 학생 영어 지도에서의 어려운 점, 한국 학생들과의 차이점, 영어 교재 선정, 탈북 영어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여 녹취 자료를 그대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녹취를 꺼리는 참여자에 한해서는 녹음 대신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탈북 학생 및 교사들의 심층 면담 이후 전사한 녹취 자료 가운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소수 대상자와 추가적인 면담을 하였다. 또한 개별 심층면담 후 연구자의 반성적 글쓰기(reflective writing)와 분석 과정 가운데 연구자의 반복적인 메모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up>1</sup> 탈북 학생 심층면담 질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Strauss & Corbin, 1998, 2008). 코딩체계의 범주화와 재범주화 과정을 반복하는 분석의 과정을 통해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영어교과 교육체계의 총론적 범주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전사한 자료 모두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전체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나 주제, 중심사건에 주목하며 특정한 개념과 하위범주들을 생성하고 개념화하였다. 교육 현상에 대한 체계적 비교 기법(flip-flop technique)을 통해 기존의 개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른 연구자의 분석에 대한 시각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Strauss & Corbin, 1998). 둘째, 중심 현상에 대한 축을 근간으로 여러 하위 범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의미있는 변인에 대한 재분류 작업과 면담자들의 이야기를 상황과 맥락적 의미에 관심을 두고 면담자료를 유목화 하였다. 한 범주를 조건 및 상호작용, 결과 범주 등과 연결하여 범주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Strauss & Corbin, 2008). 마지막으로, 면담자료를 분류하고 연관짓는 과정을 통해 애매하거나 중복된 요소들을 묶고 하위요소를 최대한 통합시키고 단순화 하였다. 자주 나타나는 개념에 근거하여 핵심범주를 생성하여 탈북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특징과 한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탈북 학생 지도 교사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제적 내용과 경험, 이를 기반으로 한 질적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탈북 초등 및 청소년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내 영어교육 현장과 필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탈북 학생들 대상 영어 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생활 밀착형 영어교육

기존의 교재 중심의 영어 교육을 통해 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탈북학생들은 실제의 한국생활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영어교육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교사와 학생의 면담 발췌 내용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몇일 전에, ‘초록색깔 커피집인데 난 그걸 못 읽는다. 스타벅스, 그래서 친구 앞에서 창피했다. 나는 그 정도만 읽었으면 좋겠다.’ 애들은 차라리, ‘선생님 저는 차라리 교과서에 있는 수업보다 간편

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활에 더 도움이 되요.’ 그런 아이들이 고3인데도 나이는 많고 중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영어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가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확실히 그런 말을 자주해요.”

(교사 1)

“어디 들어가서 뭐 사려고 했는데 한국에는 컴퓨터도 그렇고 거의 다 영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물건 사기도 어렵고.”(학생 2)

“한 친구는 저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제대로 잘 주문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버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상한 영어로 된 말들이 많이 써 있으니 그걸 보고 제대로 주문하고 싶은 거죠.”

(교사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에서 실제로 대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도 인지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는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들 가운데 영어적인 표현과 상품 이름 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생활에 밀착된 영어 교육은 탈북 학생들에게 생활 주변의 소재로 보다 친숙하게 그리고 실제로 영어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어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영어 교육은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 능력 증진의 학습적 효과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은 영어 교재와 책 위주의 전통적인 영어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생활 밀착형 성격을 띤 영어 교육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영어 학습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를 생활중심에서 익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현대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강화한 영어교육

심층 면담 결과 탈북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한국을 이루고 있는 현대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공유는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한국의 교육과 상이하다. 탈북 학생들은 현재 한국을 이루고 있는 현대 한국 문화의 현상 중 서구권 문화와의 친밀성 및 영어 어휘의 일반적 사용, 또래 집단 문화와 교육 정도 등으로 말할 수 있는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탈북 학생들은 현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 어린이 동화,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현재의 한국을 이해하는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문화적인 이해의 부족이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교사들의 심층 면담 발췌 내용은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이 문화적인 것들에 너무 취약하지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다 아는 얘기를 우리 애들은 모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한국) 아이들은 다 이해할 만한 이솝우화나 안데르센 동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문화적인 것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영어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교사3)

“리터가 나오면 선생님 리터가 뭐예요? 하고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유의 1.5리터 할 때 그 리터야 하고 얘기해 주죠.”(교사 1)

탈북 학생들은 한국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서구 문화권에서 들어 온 단위나 개념들, 동화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화권에서 탈북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어 학습을 위해 영미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적 요소를 병행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간단한 단어 및 문장을 중심으로 한 영어 이야기 책 읽기, 한국적 상황(버스, 지하철 타기 등)에 대한 대화문 등을 익히면서 한국의 문화적 요소와 영어를 함께 병행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학교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탈북 학생들을 심층 면담한 결과 이들은 학교의 영어 수업 시간에서 한국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본인의 영어 실력이 한국의 학생들보다 낮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 학생들의 심층 면담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사교육 등으로 영어 학습 능력이 신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탈북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과 대등한 영어 실력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탈북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간의 영어 능력 차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탈북 학생들이 느끼는 학력 격차와 심리적 부담감은 공교육 안에서의 또 하나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래의 탈북 학생들의 심층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은 보다 분명해 진다.

“영어가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 영어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단어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문장 이런 거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애들처럼 영어 수업 시간에 잘 하고 싶어요.”(학생 2)

“학교 애들이 영어 잘 못하고 숙제 안 해오고 그러면 놀리는 학생도 있고, 축구 할 때도 막 놀리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잘하고 싶어요.”(학생 3)

또한, 아래의 교사 심층면담 결과에서 보듯이 고학년이 될수록 탈북 학생들은 문법적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문법적 이해와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북 학생들은 대체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기에 문법적 용어를 이해하는 것과 영어 지문 독해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인 문법과 독해 능력의 저하는 탈북 학생들의 학교 영어 학습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법을 잘 몰라요. 따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한국 문법이 애들이 전에 별로 해보지 않은 것이라 어려워해요.”(교사 3)

“발음은 나쁘지만 평양의 외국어 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독해, 문법이 다 부족해요.”(교사 1)

#### 4. 탈북 학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어교육

국내에서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탈북 학생들 대상의 수준별 영어 수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현 교과과정 안에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탈북 학생 대상의 일반적인 영어교육은 많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아래의 심층면담 발췌 내용에서 보듯이 한 학급 내에서도 탈북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영어 능력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 내용 구성과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수업으로는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적 동기를 부여하거나 활발한 교육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회적 체제의 상이성과 탈북 과정에서의 교육 공백으로 인해 영어 학습에 대한 경험과 노출이 적었던 탈북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 학습 기회에 대한 증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어를 외계문자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온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수준별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수준차가 꽤나 심각하게 별

어저요.”(교사 2)

“북한에서는 영어라는 소리도 못 들어 봤어요.”(학생 4)

“한국 애들은 영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학원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엄마 잔소리도 많이 듣고. 저 같은 애들 따로 모아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2)

위의 면담 발췌 내용이 보여 주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전혀 영어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탈북 학생들도 있으며, 학원이나 사교육에 대한 경험 등이 부족하기에 학교 공교육의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서 탈북 학생들의 영어 교육적 수요와 필요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탈북 학생들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구성된 차별화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영어라는 외국어가 갖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탈북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특화된 영어 교육은 ‘먼저 온 통일’에 대한 관심과 배려, 교육 기회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영어 교육 실시를 통해 ‘다가올 통일’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통일 이후 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영어 활동

수업 중심의 영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다양한 동기 부여와 여러 가지 경험, 자신감 향상을 위한 비교과 활동을 통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아래 교사와 학생의 심층면담 발췌 내용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영자 신문은 동아리에서 처음 했구요...영어 좋아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영자 신문 하나 만들어 봤구요...영어 말하기 대회...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동기 부여가 확실히 올라가요.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상품이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 하구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자부심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교사 1)

“우리 애들이 나이가 좀 많은 친구들이 더러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로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와서 뭔가를 가르쳐 주면 그게 좀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 4학년 이상 된 학생들이나 오히려 대학원생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사 2)

“체험하면서 영어 배우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놀이 동산 같은데 가서 영어쓰면서 영어 배운다든지...”(학생 4)

위의 발췌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건전한 동기 부여와 실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수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 내에서의 명시적 영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말하기 대회, 영자신문 만들기, 현장 학습을 통한 영어 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한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신감 향상, 영어 교육 활동에 대한 재미와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위의 면담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위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탈북자 학교들과 대학이 연계한 인적 지원도 중요한 요소이다. 위의 교사 2의 심층면담 발췌 내용에서 보듯이 특히 탈북 고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학생들 보다 나이가 많은 관계로 대학교 저학년들과의 인적 교류가 오히려 탈북 학생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과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학습자의 심리적인 변인을 고려한 대학원생 중심의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현재 탈북 학생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남한 사회의 적응과 한국의 새로운 학교 문화에 대한 적응 및 수용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탈북 학생들이 개별 교과목 학습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간헐적인 연구가 있으나, 한국의 교육과 사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탈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미비한 실정이다. 즉 탈북 학생들이 겪고 있는 영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그 현장을 이해하고, 영어 교육의 질적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 학생들과 교사들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탈북 학생들에게는 생활 밀착형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학생들은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 교과 교육과 함께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한국 생활 중심의 영어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어를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영어 간판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거나 하는 등의 생활 밀착형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한국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탈북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교재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 이솝 우화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는 영어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 학교 현장에 있는 탈북 학생들은 영어 학업 성취도 및 수업 능력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 남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에 취약한 탈북 학생들의 이러한 학습 저하는 자신감 상실,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또 하나의 소외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문법과 독해 등 전통적 영어 학습에 근간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영어 활동과 경험으로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교실 학습과 함께 말하기 대회나 영어를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 마련 등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참여를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생 수준의 탈북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의 학생들 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내 학생들과의 인적자원 교류 시 탈북 학생들의 심리적 변인을 염두에 둔 인적 교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와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 교과목에 대한 탈북 학생들과 교사들의 영어교육적 경험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여 탈북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영어 교육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탈북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내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앞으로 탈북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방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심층 면담자료를 주요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탈북 청소년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탈북 학생들을 교육하는 현장으로부터의 영어 교육적 이해는 먼저 온 통일을 교육하며 다가올 통일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21세기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 통합의 한 노력으로 서로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 탈북 학생들의 영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고상숙. (2012). 탈북학생들을 위한 수학 보충학습에서 담론 속에 나타난 오류유

- 형과 담론의 특징.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5(1), 53-80.
- 고상숙, 신동희, 김애화. (2010). 탈북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포커스 그룹들과 면담을 통한 교육의 실제. *수학교육*, 49(2), 125-150.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탈북청소년교육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 탈북 학생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 김보영. (2009). *새터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교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서울.
- 김수암. (2010).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Jpi 정책포럼*, 30, 1-18.
- 김영란. (2013). 탈북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분석: 2011년 초6, 중3, 고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6, 197-227.
- 김은희. (2010). 지방자치단체의 언어정책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2, 123-138.
- 김청명. (2009). *탈북학생들의 수학학습에서 어려움과 수학을 통한 함수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용인.
- 나달수. (2008).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법과인권교육 연구*, 1, 91-114.
- 남호엽. (2013). 다문화주의 시각으로 본 탈북학생교육의 접근법.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311-318.
- 노석구, 오필석. (2013). 탈북 초등학생의 과학 교육 관련 인지적·정의적 특성. *초등과학교육*, 32(4), 495-502.
- 문희정. (2012). 다문화관점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2), 145-166.
- 박성오. (2013년 11월 23일 방송). 한국인과 영어: 욕망의 언어 잉글리쉬. *EBS 다크프라임*, 서울: 한국교육방송공사.
- 박정란, 강동완. (2011). 탈북여성 연구: 동향,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5(2), 1-24.
- 박창균. (2002). *남북한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박창희. (2014년 7월 15일). 통일준비위 출범: 통일준비·드레스덴 구상 본격화. *경기매일*, <http://kgmaeil.net/detail.php?number=49682&thread=22r03>에서 2015년 6월 5일 검색.
- 박현선. (2002).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회보*, 6(1), 209-240.
- 박현주, 노석구, 오필석, 김재우. (2014). 탈북학생을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과학교육 보충내용 제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363-381.
- 신동일, 임관혁. (2011). 정책도구로 사용되는 언어시험: 국내 영어시험 중심으로.

- 영어교육, 66(4), 281-305.
- 신원섭, 노석구, 신동훈. (2013). 탈북 학생의 생명과학 지도를 위한 초·중등학교 남북한 과학 교과서 내용 분석. *생물교육*, 41(2), 353-364.
- 안권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25-45.
- 엄경남. (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연보라. (2011). *새터민 청소년의 수학 학습 적응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오사라. (2008). *대안학교 새터민 청소년의 영어교육 현황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서울.
- 이부미. (201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23-57.
- 이선옥. (2007). *중등 수학 용어의 이해와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
- 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심으로. *평화연구*, 19(2), 367-404.
- 임미연. (2014). 예비과학교사의 탈북학생 가르치기 경험의 교육적 이해.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4(5), 373-396.
- 임민순. (199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연구*, 4, 149-168.
- 임재훈, 이정화, 박경미. (2003). 북한 고등중학교 수학 교과서 구성 방식의 변화 고찰. *수학교육학연구*, 13(1), 95-106.
- 정병호, 정진경, 양계민. (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 정새론, 임현우. (2009). 북한이탈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에서의 영어학습. *중등교육연구*, 57(3), 85-111.
-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2(2), 215-248.
-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12(2), 179-194.
- 조윤동, 강은주, 고희경. (2013).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차별기능문항문항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12(2), 75-94.
- 최경자. (2008).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 최서연. (2012). 영어 중시 교육정책의 계층적 권력효과: 말레이시아 도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63, 223-257.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에서 2015년 6월 13일 검색.

통일부. (2015b). *2015년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준비와 협업*.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19>에서 2015년 6월 13일 검색.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09-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이향규, 김윤영, 채정민. (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 (연구보고 RR 2010-1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홍덕기. (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학교 및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Littlewood, W. (2001). Students' attitudes to classroom English learning: A cross-cultural study. *Language teaching research*, 5(1), 3-28.

Lee, Nari & Hwang, Eunha. (2014).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using English requests during synchronous computer communic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5(3), 103-121.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Strauss, A., & Corbin, J. (200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 Sage.

부록

탈북 학생 심층면담 질문

1. 자신 소개	- 자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학년, 형제 및 가족관계, 한국에 언제 왔는지, 삼국체류 및 기간, 학교 수업 중 재미있는 것 등).
2. 영어에 대한 흥미도	- 영어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재미있어요? -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 수업 활동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 수업 활동 중 가장 재미없었던 것은?
3.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	- 한국에서 영어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나요?
4. 영어와 생활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 한국 친구와의 대화 중 영어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된 적이 있었나요?

5. 영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	- 학교에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 학교 수업 시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든가요?
6. 학교 외의 영어 수업 경험	- 영어 학원, 동영상 강의 등을 수강해 본 적이 있나요?
7. 교재 활용	-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가 이해가 잘 되나요? - 교재 내용 중 '이런 것은 더 해 보고 싶어요' 하는 부분이 있나요?
8. 좋은 교사	- 어떤 영어 선생님이 좋은가요?
9. 자가 판단 영어 능력	- 본인의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10. 남한 영어 학습의 경험	- 남한에서 영어 학습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요?
11. 북한에서의 영어 학습의 경험	- 북한에서 영어 학습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요? -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12. 부모의 기대	-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신지요?
13.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	- 영어 공부하는데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이현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 249-9294/ C.P.:010-5135-2879

Email: bright1353@gmail.com

Received 27 June 2015

Revised 6 August 2015

Accepted 17 August 2015